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행동합니다

여성환경연대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가 함께 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공헌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 IMPACT GROUND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 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발행처 (재)브라이언임팩트
- 발행일 2025년 12월
- 이메일 contact@brianimpact.org
- 홈페이지 www.brianimpact.org
- 기획 및 제작 (주)한국사회가치평가

Contents

1	여성환경연대	04
	여성환경연대의 시작	
	여성환경연대가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주요 사업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08
	에코페미니즘 X 확산 :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 운영	
	에코페미니즘 X 액션 : 월경권 제도 및 인식전환	
	에코페미니즘 X 연결 : 《플랫폼: 달》 개관 및 운영	
3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13
	임팩트 프레임워크	
	임팩트 하이라이트	
	임팩트 1. 플랫폼으로서 생태계 구성에 기여 : 에코페미니즘 가치의 지리적, 인식적 확산	
	임팩트 2. 조직화 및 연대, 대안생활과 기후변화 : 의제의 다양성과 매체(medium)의 확장	
	임팩트 3. 정책화 및 환경건강 : 월경사업: 생리대유해성 공론화 및 월경 인식 개선에 기여	
	임팩트 4. 자원구축 및 대안생활 :《플랫폼: 달》 개관으로 대중 점점 마련 및 네트워크 확충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33

2024 IMPACT REPORT

1 여성환경연대



여성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실천과 정책 변화를 이끄는 시민단체입니다.

생활 속 환경운동부터 기후위기 대응, 생태적 전환까지 여성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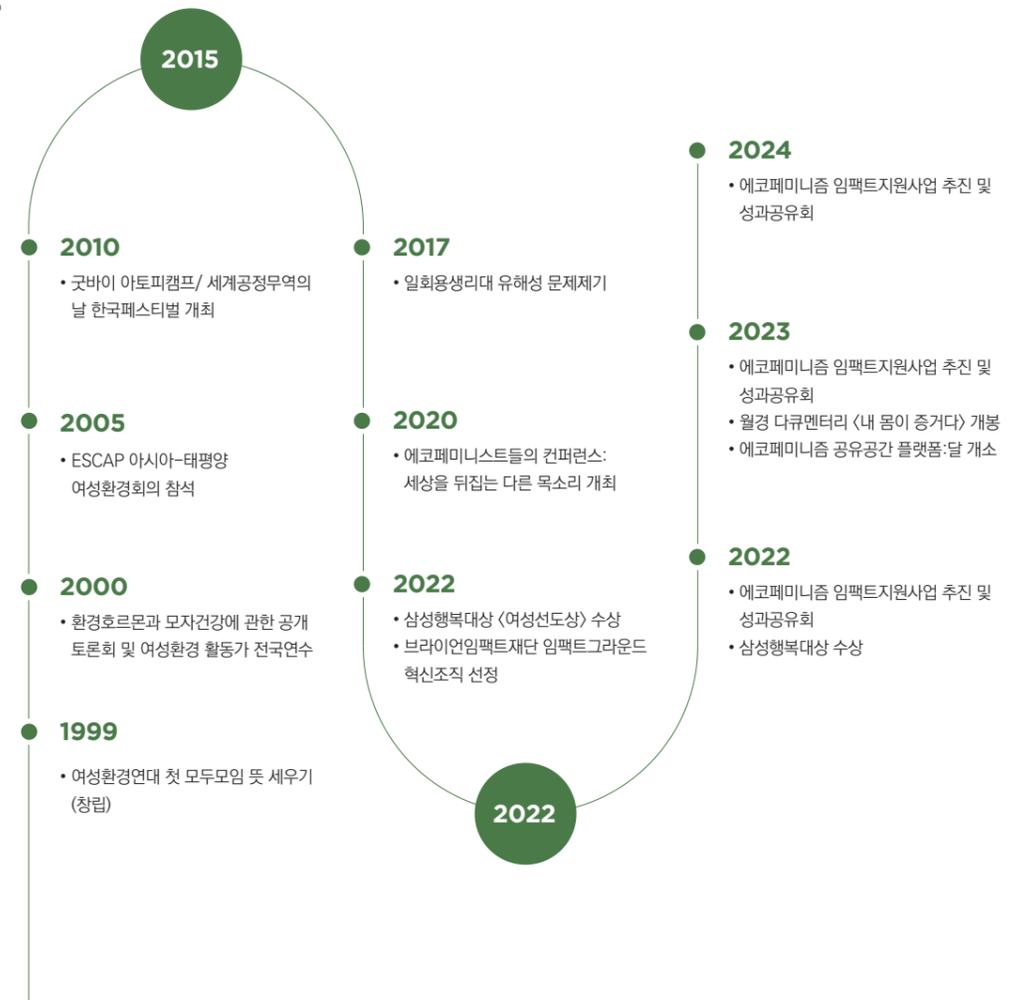
여성환경연대의 시작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에 창립된 여성환경운동 단체로 여성의 관점에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건강하고 평등한 세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자연의 속도에 맞는 느리고 단순한 삶, 이것이 여성환경연대가 만들고자 하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을 꿈꾸며, 일상으로부터 녹색의 대안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 에코페미니즘이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자연에 대한 억압이 같은 뿌리를 가진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정의합니다. 에코페미니즘이 실현된 사회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돌봄과 살림의 녹색사회를 의미합니다.

여성환경연대가 걸어온 길



미션과 비전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비전

여성이 주체가 되어 생태적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미션



창립선언문

우리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어가려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청소부 노릇도, 용감한 환경투사 노릇도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머물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힘을 합치는 세상.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대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뭉치지는 않으려다.
또 하나의 커다란 조직을 만들어 관료주의, 권위주의, 경직성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 일터에, 지역에 흩어져 있고자 한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어져 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오던 열정과 경험을 이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주요 사업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기후위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여성의 몸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가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며 ‘더 빨리’, ‘더 많이’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더 많은 화학물질, 더 많은 쓰레기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오염 시켰습니다. 길어지는 폭염, 빈번해지는 산불, 반복되는 폭우와 수해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그 피해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은 생애주기에서 평균 40년 동안 월경을 합니다. 월경은 여성 건강의 중요한 지표이자 여성의 몸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초경부터 완경까지 여성이 월경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예민함’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했고, 월경용품 속 화학물질과 월경 빈곤, 여성의 몸을 혐오하는 문화 등으로 얼룩져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솔루션

여성의 몸을 존중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회용 생리대가 출시된 지 45년이 지났고 많은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성에 관한 연구는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해 8월, 3,009명의 여성들이 ‘내 몸이 증거다’라는 메시지로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을 제보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생리용품 제조사들도 인식을 바꿔 문제를 개선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여성의 몸을 존중하고 친환경적이며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월경

월경용품 안전성 보장 및 월경 빈곤 해소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월경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 제공, 정보 콘텐츠 제작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X 여성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 및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정책 제안집을 발간합니다.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실천

일회용컵, 페트병을 비롯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과 관련 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요성과

지난 10년 간 성과(2014~2023년)	
에코컨퍼런스 (주제: 여성건강, 외모, 기후위기 등)	8회
캠페인 (주제: 월경, 건강하게 생리할 권리, 기후위기 등)	5회
기자회견 (생리대 안전성 및 화장품, 월경 빈곤 등 관련)	14회
포럼 (주제: 식량주권, 기후변화, 모두를 위한 월경 등)	6회
워크숍 (월경정책 및 미세플라스틱 관련)	3회

2024 IMPACT REPORT

2 임팩트그라운드를 통한 솔루션 혁신



여성환경연대는 그간 에코페미니즘의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계기로 여성환경연대는 새로운 단체를 브랜딩하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확산 · 액션 ·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와 여성환경연대가 창출한 임팩트



여성환경연대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동안 외부 단체들과는 주로 컨퍼런스에서 만나거나 여성환경연대가 직접 컨퍼런스 또는 연수 및 축제 등을 개최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는 일회성 성격이 짙어서 이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임팩트그라운드를 만났습니다.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

에코페미니즘 X 확산 :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 운영

여성환경연대는 그간 지부 2곳과 지역모임을 기반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먹거리-환경, 생태텃밭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여성들이 함께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자조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성의 몸과 생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여러 활동이 에코페미니즘과 연계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모임을 진행하더라도 여성환경연대의 주요 무대가 여전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머물러 있음을 자각하였습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을 계기로 여러 활동가와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 가치를 공유 · 확산하였습니다.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 시행 현황	
기획의도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새로운 이슈 · 활동가 · 조직을 발굴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지원기간	2022~2024년
지원단체	• 퀴비스토어 • 등대로 • 녹색전환연구소 등 30개 단체
지원규모	* 퀴비스토어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원 대상에 선정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 창립 이래 지난 20여 년간 에코페미니즘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하여 새로운 이슈를 발견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에코페미니스트, 단체들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여성환경연대 안현진 팀장

에코페미니즘 X 액션 : 월경권 제도 및 인식전환

2023년 여성환경연대는 월경 다큐멘터리 《내 몸이 증거다》를 제작 · 상영함으로써 월경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환경연대 월경 운동의 성과를 일반 대중과 공유하였습니다.



My Body My Proof (2023)

감독: 유혜민
러닝 타임: 21분
12세 이상 관람가
한글 자막

시놉시스 |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를 연구하여 그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찾아낸다. 생리대의 유해성을 알리는 운동을 조직하고 한국 사회가 한 차례 들썩이고 난 후, 법원으로부터 우편물 하나가 도착한다. 생리대 제조사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도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정책 의제화하기 위해서 ▲국회 토론회 ▲‘세계 월경의 날’ 맞이 기자회견 ▲월경 말하기 캠페인 ▲월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월경 교육 키트 개발 등 월경권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부터 수행한 연구이다. 정당 여성위원회는 2017년 9월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여성의 건강피해를 규명하고자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하였고, 이를 계기로 추진되었다.

에코페미니즘
X 연결 :
《플랫폼: 달》 개관
및 운영

여성환경연대는 임팩트그라운드 참여 이전부터 에코페미니즘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를 고민하고, 생태적 대안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의 시간을 돌보는 공간이 필요했지만, 여성환경연대의 역량만으로는 이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으로 서울 마포구에 독립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기후위기와 여성에 관한 다양한 강좌, 워크숍,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 무료 대관 사업으로 공간이 필요한 에코페미니즘 모임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달》 내부 전경



2024 IMPACT REPO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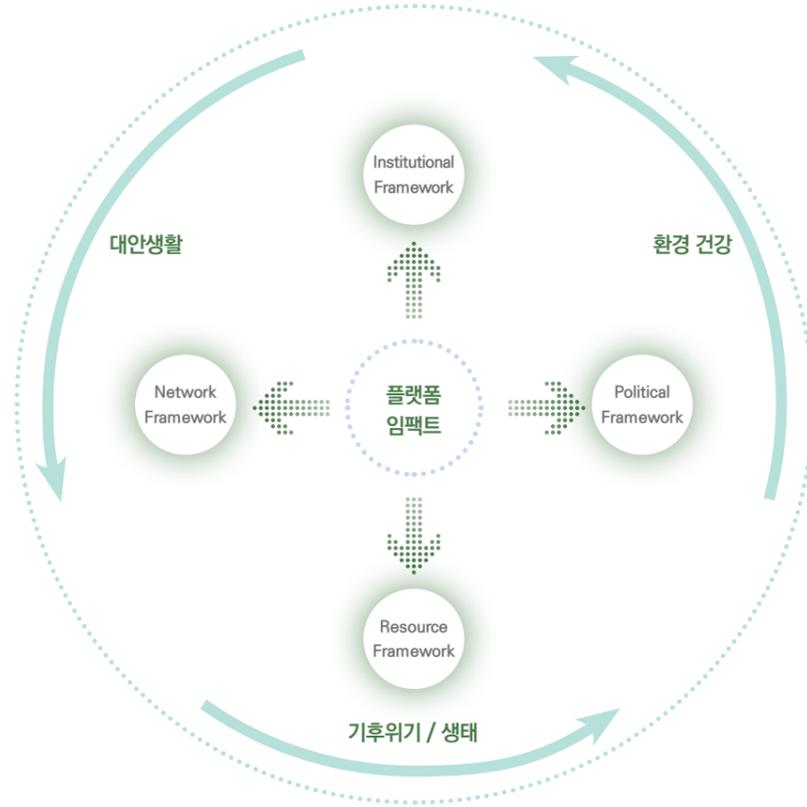
가능성에서 현실로:
임팩트그라운드 이후
변화의 기록



여성환경연대는 에코페미니즘 가치를 확산하며 생태적 연대와 대안적 삶의 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매체를 통해 조직화와 실천을 넓히고, 정책과 환경건강 영역에서도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달》 개관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임팩트 프레임워크 : 플랫폼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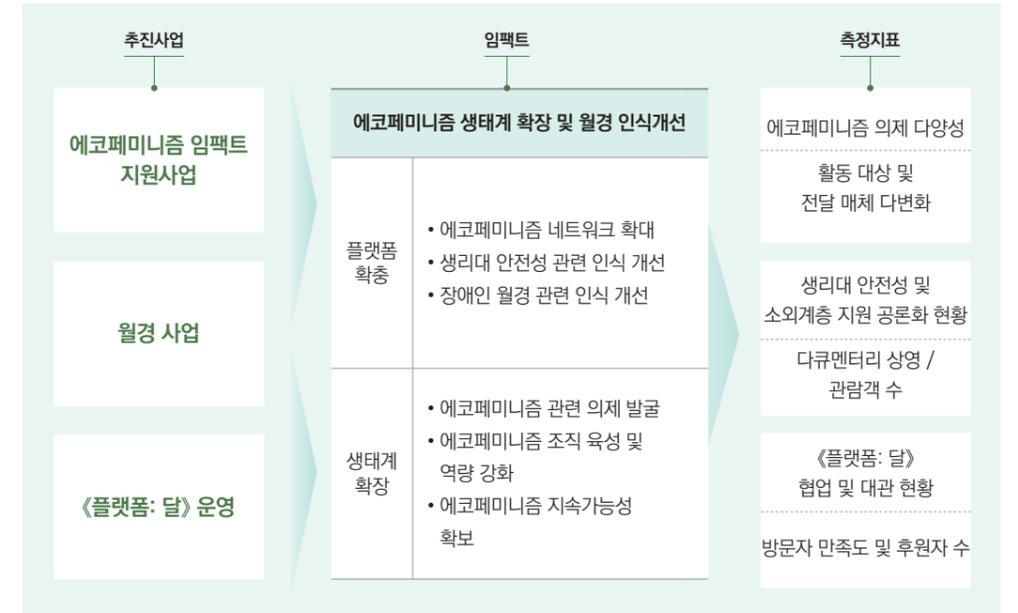


여성환경연대 임팩트 프레임워크 소개

여성환경연대가 에코페미니즘 생태계의 플랫폼으로서 조직과 사람을 지원하여 창출하는 임팩트		
플랫폼 임팩트	조직화 (Institu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뿌리 기반조성 • 에코페미니즘 조직 인큐베이팅 • 활동가 및 조직 육성 지원
	연대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뿌리 운동 : 단체들이 연대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다가가도록 함 • 네트워크운동: 에코페미니즘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시민사회연대에 주도적 참여) • 국제연대
	정책화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론 및 정책 형성을 위한 활동 전개
	자원구축 (Resou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확보를 위한 협력과 노력

여성환경연대 플랫폼 임팩트에 기반하여 영향을 미친 에코페미니즘 생태계의 다양한 활동 임팩트		
생태계 임팩트	환경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어린이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 (여성건강 / 월경건강 / 소비자 건강 / 어린이 건강)
	대안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에코페미니즘 활동을 제안하고 확산하는 활동 (에너지소비 / 슬로우라이프 / 대안문화 / 도시농업 / 플라스틱없는 삶 등)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대중 참여의 아젠다를 제시 및 확산하는 활동 (피해사례 발굴 / 기후우울 글쓰기 / 정책보고서 발간 등)

임팩트 측정 프레임워크



임팩트 하이라이트

	지표	2021년	2024년	증감율
플랫폼 임팩트	에코페미니즘 조직화 및 연대	3~4개 조직 수도권 중심	30개 조직 전국 12개 지역	10배 증가
	다큐멘터리 제작	-	1편	32회 상영 1,500명 관람
생태계 임팩트	캠페인 기자회견	32회	44회	약 37% 증가

임팩트 1.
플랫폼으로서
생태계 구성에
기여:
에코페미니즘
가치의 지리적,
인식적 확산

여성환경연대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여성과 환경분과’를 조직, 참여하는 것에 이어 다양한 여성환경운동가들을 만나며 1999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정기 월례포럼과 여성활동가 전국연수를 개최하며 활발하게 한국사회의 여성환경운동가들을 격려하고 연결하였고 이로써 에코페미니즘 생태계를 구성해 왔습니다.

그간 여성환경연대는 에코페미니즘을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을 인큐베이팅하면서 에코 페미니즘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에는 여성환경연대의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 관련 조직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환경연대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에코페미니즘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은 “전국 곳곳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을 발굴하여 에코페미니즘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자”는 포부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분야는 생태적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활동 전반을 다루고 ▲캠페인 ▲연구 ▲소모임 ▲교육 ▲예술활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개팀에게 3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누적 지원금액은 9,000만원에 달합니다.

누적 지원 팀	누적 지원 금액
30팀	90,000,000원

이로써 그동안 여성환경연대의 지부 2곳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지역별 에코페미니즘 활동을 시행해 오던 것이 이제는 전국 각지 여러 단체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는 에코페미니즘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의 활동 지역을 표시한 임팩트 지도입니다.

지역	단체 수						
서울	7	경기	5	강원	3	충남	3
경북	1	경남	1	세종	1	울산	1
전북	1	전남	1	광주	1	제주	1
전국	3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 지도



에코페미니즘 개념과 지향점 공유를 통한 가치 확산

에코페미니즘 가치를 공유하는 단체들을 발굴, 지원하는 활동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지역)의 확장 뿐 아니라 단체의 지향점이 에코페미니즘과 상통한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 가치 확산’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례로 2022년 1기 지원 단체로 선정되었다가 “우리가 하는 일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2024년에 두 번째 지원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퀴비스토어가 주인공입니다.

2022년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경 교육(“월경 말하기, 월경 알리기, 월경 나누기”)을 진행하던 퀴비스토어는 2024년 “월경에서만큼은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목표 아래 발달 장애인 대상 월경 교육*으로 사업 영역을 심화시켰습니다.

* 발달장애인에게 월경은 단순한 신체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어려움에 노출되는 계기가 됩니다. 퀴비스토어는 이들을 위한 월경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발달장애인 여성이 발달장애인 여성을 교육하는 멘토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지원받을 때만 해도 에코페미니즘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환경연대와 소통하고 지원받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여성과 자연을 연결하고 존중하는 에코페미니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퀸비스토어의 정체성이 뚜렷해진 것이죠. 단순히 개인 건강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와 환경, 우리를 둘러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친환경 제품만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의 몸, 건강, 환경 문제를 함께 연계하고 연결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퀸비스토어 담당

에코페미니즘, 관심에서 실천으로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은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천 방법을 고민하던 활동가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지역 내 참여 기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2기 지원 대상이었던 리페어 랩(Repair Lab)은 '오래 되었지만, 아직 생명이 있는 물건을 고치고 다듬어서 다시 사용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시보다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리페어 랩 이원주 활동가는 수리·수선을 위한 연구모임 참여자 10명을 모집하고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회 홍보를 통해 인원을 보강하여 총 8회의 모임에 지역 주민 84명이 참여했는데, 참여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생각만 하던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답했습니다.

* 다시보다사회적협동조합: 지속가능한 환경여행, 비건 캠핑, 어린이 자원순환 놀이터, 장남감 학교 '슬모'를 운영하고 환경교육을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혼자 생각했다면 엄두도 못 내었을 일인데 함께 하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내에 연구 결과가 공유되길 바라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평소 환경문제, 재활용, 재사용 등에 관심은 많았지만 이렇게 관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주변에 그냥 버려지는 것들도 다시 고쳐쓰면서 자원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는데 리페어 모임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나눌 수 있어 의미있었습니다.

2기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중

임팩트 2. 조직화 및 연대, 대안생활과 기후변화

의제(agenda)의 다양성과 매체(medium)의 확장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의 두 번째 성과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에 관한 의제(agenda)의 다양화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에코페미니즘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문래와 홍대 등지에서 도시텃밭 교육, 자연을 꿈꾸는 학교텃밭 교재 발간, 도시농부장터 마르쉐 인큐베이팅 등 도시농업과 관련한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경험의 장으로 넓혀 왔습니다. 임팩트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지원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생태적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활동 전반'을 표방하였는데, 그 결과 "이런 주제도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의 주제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에코페미니즘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지원사업 참여 팀들의 활동은 크게 5가지 의제(기후위기·여성건강·제로웨이스트·돌봄·동물권)와 기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기 때는 기후위기와 돌봄, 여성건강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2023년 2기부터는 동물권과 제로웨이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 : 의제의 다양화 (2022~2024년)



위의 그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에서 각 팀이 다른 주제와 주제별 참여 팀들의 현황을 기수별로 누적 합산한 그래프입니다. 기타 분야 주제를 제외하고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기후위기와 여성건강, 돌봄 의제가 제시되었고, 2023년에는 동물권과 제로웨이스트가 등장하여 5개 의제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새롭게 추가된 2개 의제를 제시한 팀이 각 1곳인 반면 2024년에는 제로웨이스트 관련 팀이 2곳으로 늘어나 활동 팀의 수가 의제별로 크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임팩트 지원사업이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의제로 진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수별 사업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기(2022년)

주제	사업 명	활동주체 및 매체
기후위기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는 여성농민들, 봉강 언니들 이야기 *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서 여성농민 인권을 탐구 * 생명농사를 짓는 여성농민의 힘과 생태적 가치를 발굴·홍보	정숙정 * 생태딤밭 경작(시민참여)
	2022년 최악의 가뭄과 여성이주농업노동자의 삶 * 기후위기가 여성이주농업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입 * 농촌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문수영 * 정책 제안
	친구 따라 논밭 간다 * 2년차 초보 시골러와 귀촌 지망생의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장미빛 * 김장 및 막걸리 담그기
	부천에서 기후정의 * 부천 지역 내 기후정의 청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중 만남 행사 * 채식 밥상·환경 영화 상영·기후위기 캠페인·학습모임 등 진행	부천연대 기후정의 '내일' * 캠페인·등산·학습모임 등
여성건강	빨강펜: 월경의 당연한 빨강색을 전하는 펜이 되자 * 강원도 여성 청소년 대상 월경 교육 및 월경 캠페인(3회, 100명) 진행	퀸비스토어 * 청소년 교육 및 캠페인
돌봄	돌돌돌: 돌봄을 돌아보고 돌보기 * 적극적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시선에서 돌봄 문제를 다양한 층위와 교차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는 강좌와 돌봄 노동자들의 생애사 발표회 진행	다른몸들 * 강좌 및 생애사 발표회
	등대로(To the Lighthouse): 나다음과 남다른 그 사이 * 2030장애 여성들의 자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교육 진행	김민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 제주에서 생태적이며 성평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 * 습지·바다·숲·전시·영화·발 등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기록	권선숙 * 음식 나눔 및 사진 공유
기타	에코페미니즘, ZOOM IN! * 청소년인권·노동·페미니즘·기후·동물권 등을 매개로 만난 동료들이 환경과 여성을 주제로 2편의 영상물 제작	다락방 * 영상물 제작
	성평등과 중평등을 향한 자매중의 연대: 세미나와 견학 *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재해석	다중의 연대 공부방 * 블로그 연재/ 현장답사

2기(2023년)

주제	사업 명	활동주체 및 매체
기후위기	월정해녀투쟁기 * 제주 구좌읍 월정리: 과거 해녀항일투쟁의 고장 * 월정 해녀들이 바다의 이상징후를 알리고 기후 투쟁 운동 전개	엄문희 * 포토에세이 출판 추진
	행운의 에코편지 * 낯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기후침묵을 깨고 메아리를 불러일으킴	조연정 * 에코 편지 작성/ 전시
	속닥거리다 보니 모였네! * 전북 순창군을 기반으로 기후가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걱정하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먹고 나누며 공부	최수진 * 식사나눔 및 학습모임
	기후위기 시대, 여성들의 씨앗-이음 연대기 * 강원도 강릉의 20~5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시대 토종씨앗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연대	생태전환마을 내일 * 토종씨앗 자원조사

주제	사업 명	활동주체 및 매체
여성건강	노원, 모두를 위한 월경을 시작하다 * 서울 노원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월경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박미경 * 노원구청장 및 노원구청 관련 부서, 구의회, 시민사회 간담회
돌봄	모두를 위한 서로 돌봄 * 모든 이가 돌봄 역량을 갖춰 여성과 남성, 가정과 기관이 돌봄책임을 균형있게 나누고 개인생활에도 노동과 돌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돌봄이 사회화'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고 홍보물을 제작	고지선 * 돌봄 사례공유 * 인터뷰 및 토론회
동물권	주폴리스 - 동물권 정치 이론 *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사는 공동체 관련 저서 번역 및 출판	김포도(김경진) * 번역본 출간
제로 웨이스트	리페어 Lab * 수리가 번거롭거나 비용 또는 정보 부족으로 버려지는 물건에, 적정기술을 활용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활동을 기획하고 연구	이원주 * 시민 대상 리페어 교육
	패피: 패스트패션을 피하는 사람들 *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인지함으로써 주류 패션에 편입되지 않는 불안감 해소 및 패스트 패션에 저항하는 활동 전개	봄(김예진) * 카드뉴스·캠페인
기타	Q농캠프 2023 : 땅끝우먼로드 * 시골살이 혹은 해남이라는 지역이 궁극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계절별로 3회 캠프 진행	김혜리 * 환경문제 토의

3기(2024년)

주제	사업 명	활동주체 및 매체
기후위기	교통 문제를 통해 여성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시도하다 * 충남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시작되어 소도시 단위의 기후위기 및 교통 정책 관련 연구에 적합 * 보령시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 정책을 젠더적 관점으로 조명	녹색전환연구소 * 심층면담 및 간담회
	봉산 생태 아카이브 웹사이트 구축 * 은평구, 봉산에 무장애숲길 조성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생태적 고려 없는 노선 설계로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 * 무장애숲길 조성 공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봉산 생태를 영상으로 기록	얼라이브아카이브 * 사진·영상·음성 기록물
	활활스탠드업 코미디쇼 : 기후위기로 웃겨볼게 * 기후위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유머라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코미디쇼 공연	에코미디 * 코미디쇼 공연
여성건강	빨강펜: 다다른 편 * 강원도 원주시 거주 발달장애여성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신체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월경 중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생활기술을 익힐 수 있는 월경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북 개발	퀸비스토어 * 월경교육 및 가이드북 개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급 사업 관련 정부 예산안 및 사업 분석 * 여성가족부의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급 사업 피보조기관의 실행행위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의 생리대 보급 사업에서 보완해야 할 정책적 제안 지점을 확인	F.G.F.A. * 분석 결과 보고서

주제	사업 명	활동주제 및 매체
돌봄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의 상생과 돌봄 네트워크를 위한 정책 조사 및 제언 * 환경·안전·건강·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 여성 1인 가구가 처한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 바깥의 돌봄 관계망 구축, 상호돌봄 네트워크 형성 및 사례 조사	예술네: 에이징솔로네트워크 * 사례조사·정책 제언
	소규모 서로돌봄 커뮤니티 플랫폼 테스트 * 마을 기반의 커뮤니티나 서로 돌봄을 주제로 이슈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고양시에서, '소규모 커뮤니티 내 실생활의 소소한 돌봄 서비스를 이웃 간에 의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통/교류 플랫폼' 구축	우리동네 서로돌봄 마당 테스트팀 * 돌봄 교류 플랫폼 구축
제로 웨이스트	무한동력 실험실: 무해한 지구를 공동체의 힘으로 * 사지 않고 나눠 쓸 수 있는 공유물품 순환 거점 공간 '도는 플랫폼'을 실험하고 일상에서 시민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 공유물품 순환 플랫폼 실험
	Do green: 생태적인 행사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 * 실용적·생태적 디자인 가이드 제안을 목표로 제작 생태계 전환을 살피는 자료를 리서치하고 수집 자료를 분석·목록화하여 공유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FDSC) * 생태적 디자인 가이드 제안을 위한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동물권	새벽이생추어리 비질(vigil) 모임의 기록집 제작 * 새벽이생추어리 비질 모임에서 진행하는 비질의 순간을 담은 기록집 제작을 위해 답사와 원고 작업 수행 ** 비질: 사회적 참사를 애도하고 현실을 위부로 증언하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일컫음	새벽이생추어리 * 축산업과 동물착취산업 현장을 사진과 글로 기록

에코페미니즘의 외연 확장 및 전달 매체 (medium)의 다변화

의제 다양성을 기반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 팀이 연대(solidarity)하거나 지원 또는 탐구한 대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기는 ▲여성일반 ▲소년 ▲농촌 여성 등에 초점을 두었고, 2기는 1기 대상자에 더해 해녀, 동물권에 관심있는 시민 등이 추가되고 3기에 가서는 ▲발달장애 여성 ▲중장년 여성 1인가구 ▲정부 및 지자체 ▲디자이너 등으로 외연이 확장되어 갑니다.

활동의 방향이나 전략, 전달 매체의 측면에서도 다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는 주로 특정 주제나 사회운동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인식을 제고하거나 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가졌다면 2기는 구의회와 간담회, 조례 모니터링 등 정책과의 접점이 등장합니다. 3기는 생리대 사업 예결산 분석이나 교통 정책을 젠더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등 정책 제언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전달 매체에 있어서도 1기에는 주로 교육이나 강좌, 캠페인, 영상 제작 방식을 활용한 반면 2기는 포토에세이, 에코편지,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됩니다. 3기에 접어들어서는 코미디쇼와 디자인 가이드 제작, 지역 단위 또는 직군 중심의 플랫폼 구축 등 실험적 접근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은 에코페미니즘 관점을 확대하고 활동 지형 확산에 이바지했습니다.

1~3기별 신규의제 및 전달매체 다양화



- 1기(2022년)** : 특정 주제나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
- 2기(2023년)** : 구의회와 간담회 및 조례 모니터링 등 정책과의 접점 등장, 감성적 매체 활용 증가
- 3기(2024년)** : 생리대 사업 예결산 분석 및 교통 정책 분석 등 정책 제언 활동 심화와 더불어 코미디쇼 공연, 플랫폼 구축, 정책 분석, 디지털 아카이빙 등 실험적 시도 확대

**임팩트 3.
정책화 및 환경건강**

월경사업, 생리대유해성 공론화 및 월경 인식 개선에 기여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월경 사업은 여성환경연대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면 서는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내 몸이 증거다》를 제작하여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월경 다큐 《내 몸이 증거다》는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제26회 서울인권영화제, 제6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 등에 초청받았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인디그라운드 ‘독립영화 라이브러리’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또 한 한국 및 아시아의 우수 다큐멘터리 발굴 & 창작자 지원을 목표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산업 플랫폼 DMZ Docs 인더스트리의 K-Doc 중단편 피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공동체 상영 횟수	공동체 상영 관람객
32회	1,500여명

여성환경연대는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기자회견을 갖고 월경권에 관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2023년 세계 월경의 날에도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플랫폼: 달》에서 《내 몸이 증거다》 감독과의 대화 이벤트를 여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 맞이 기자회견 및 이벤트		
2022년	<p>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권은 월경권 방치 말고 책임져라!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배정하라! 	
2023년	<p>생리대 가격/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안전관리 기준 강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라! 	
2024년	<p>모두를 위한 월경권 인식 개선의 장 마련 : 블러디 파티 & 영화 상영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몸이 증거다》 영화 감독과의 대화 	

아울러 여성환경연대는 생리 관련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매년 ‘월경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월경 경험을 기록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에서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과제를 시리즈로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 월경 말하기 주제(일하는 여성들의 피, 땀, 눈물)

[1편] “화장실을 갔다가 컴플레인 받았어요”
• 학습지 교사 인터뷰로 본 이동 노동자의 월경

[2편] “월경 휴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죠”
• 콜센터 노동자 인터뷰로 본 월경

[3편] “월경불순, 간호사들에게 너무 흔한 일이에요”
• 간호사로 본 야간 교대근무제 노동자의 월경

[4편] 물이 나오지 않는 화장실... 생리대 교체 못한 적도 있어요”
• 건설 노동자 인터뷰로 본 야외 노동자의 월경



2023년 월경 말하기 주제 : 다 다른몸, 그리고 월경

2023년에는 장애인 여성의 월경 경험을 기록하고 여성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월경권이 보장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 월경 말하기 주제 : 하나뿐인 지구에서 1회용 월경용품과 작별하기

2024년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1회용 월경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월경용품 실천을 위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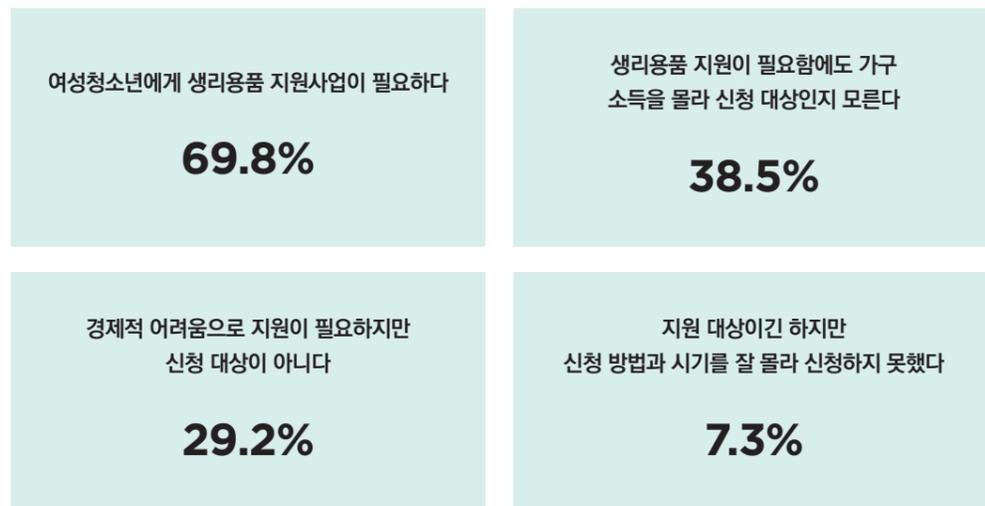
그 결과 언론의 경우 2022년 14,220회, 2023년 83,009회, 2024년 9,901회 등 총 106,320회의 조회수를 달성하였으며, 카드뉴스도 누적 조회수 21,957회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2022년 11월에는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그 이후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1·2차 책임 연구자였던 정경숙 교수는 “일회용 생리대는 면생리대 사용자보다 생리통 발생 위험이 높고, 생리컵 사용자보다 모든 생리 관련 증상의 발생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도 국정감사 대응 활동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례조사와 카드뉴스를 제작 하였고, 이를 위해 2024년 9월 30일~10월 20일 여성청소년(만 9세~24세) 1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9.8%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원인

으로는 '가구 소득을 몰라 신청 대상인지 모른다'(38.5%),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청 대상이 아니다'(29.2%), '지원 대상이긴 하지만 신청 방법과 시기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7.3%)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 대응 활동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실태 설문 조사)



여성환경연대는 위와 같이 정책 촉구 노력뿐만 아니라 월경 교육이 필요한 학교, 청소년 기관 및 일반 시민에게 무료 월경 교육을 진행하고 다회용 월경용품 사용 실천을 위해 다양한 월경용품 키트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2022~2024년 간 월경 교육에 참여한 기관 및 인원, 키트 배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경 교육 참여 기관 및 교육 시행 횟수	15개 기관 / 61회
월경 교육 참여 인원	1,875명
월경 키트 제작 현황	71개 (강사용 17개/ 학습사용 54개)
월경 키트 배포 기관 수	11개 기관
월경 교육 매뉴얼 사용 설명 동영상	5개 제작 (인쇄본 250부 배포)

월경 캠페인이 생리대 유해성 관련 사회인식에 미친 영향

여성환경연대의 월경권 운동 및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공론화 활동이 사회인식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이하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생리대 유해성 관련 검색어들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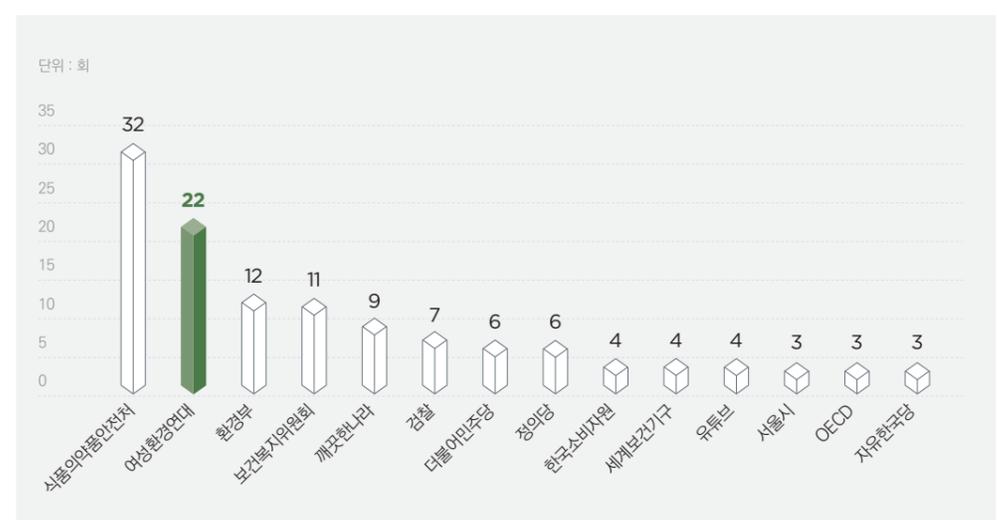
- **검색어** :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생리대 발암, 생리대 통증, 생리대 유해성
- **검색 기간** : [1차] 2019~2021년 / [2차] 2022~2024년
- **검색 결과** (뉴스 건수) : [1차] 607건 / [2차] 373건

특히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의 도움을 통해 진행된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과 다큐멘터리 제작·상영 등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연관 검색어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은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전의 3년을 1차 시기로, 지원받은 3년의 기간을 2차 시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빅카인즈에서는 검색어로부터 파생되는 연관 검색어의 속성을 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로 분류하는데 여성환경연대는 “기관”에 해당하기에 기관 속성을 지닌 연관 검색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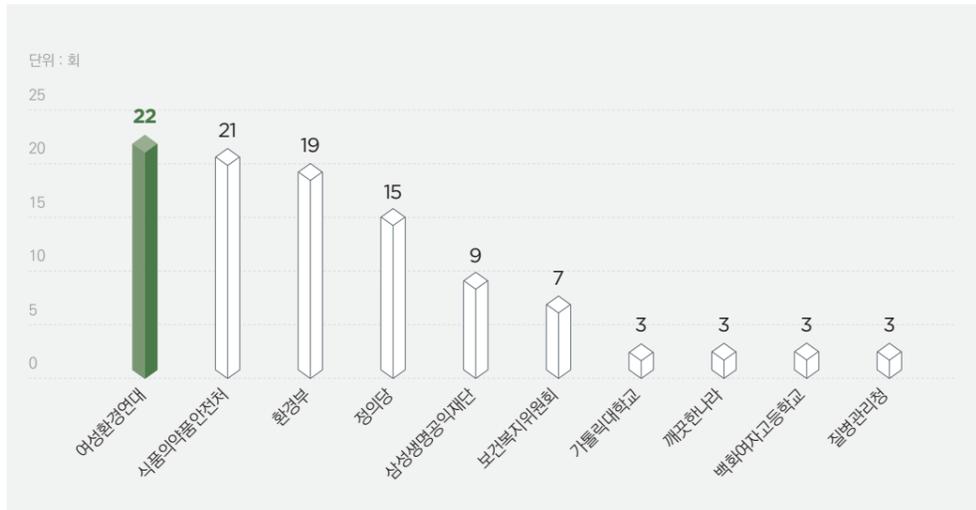
그 결과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전인 1차 시기(2019~2021년) 생리대 유해성 관련 연관 검색어(기관)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2회로 최다 빈도 수를 보였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22회 등장하며 그 다음을 이었고 3위가 환경부(12회), 4위가 보건복지위원회(11회), 5위가 깨끗한 나라(9회) 순이었습니다.

반면,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기간인 2차 시기(2022~2024년)에는 1차 시기 1위를 기록한 식품의약품안전처(21회)를 여성환경연대가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22회)로 올랐습니다. 환경부는 1차 시기와 동일하게 3위(19회), 정의당이 4위(15회), 삼성생명공익재단이 5위(9회)로 나타났습니다.

2019~2021년 생리대 유해성 관련 연관 검색어(기관)



2022~2024년 생리대
유해성 관련 연관
검색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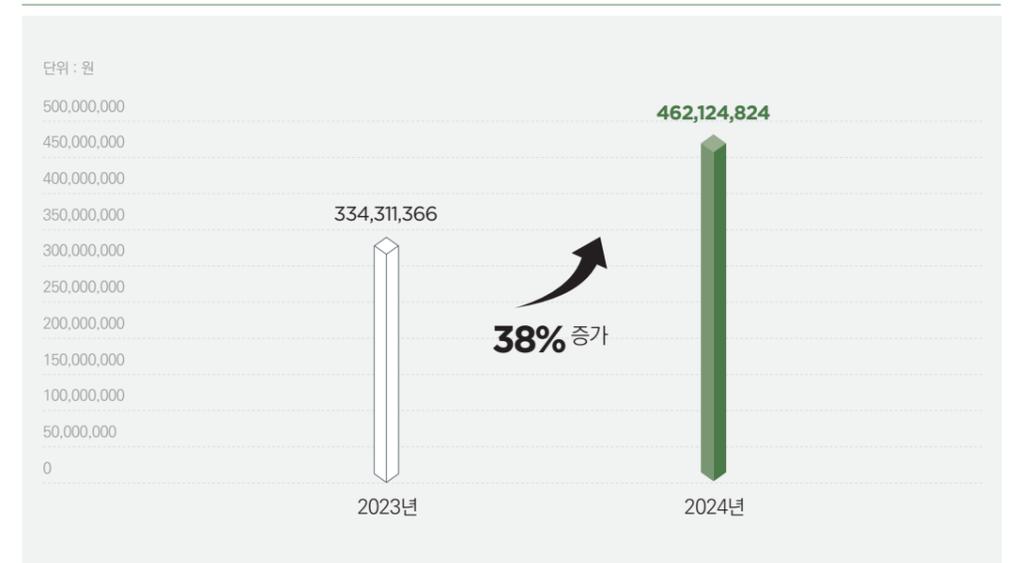
생리대 유해성 관련
검색어워드클라우드
(빈도수)

생리대 유해성 관련 연관 검색어 (기관)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이전(2019~2021년)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기간(2022~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강원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서울창업허브 국토교통부 도움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MIT 리얼미터 경기도의회 정의당 근로복지공단 강동구청 한창 KOTRA 기획재정부 깨끗한나라 OECD 농촌진흥청 보건복지위원회 유튜브 환경부 굿네이버스 여성환경연대 검찰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자유한국당 서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럽연합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와디즈 깨끗한나라 백화여자고등학교 노브랜드 세브란스병원 국무조정실 카카오 계엄사령부 경희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BC 경희대학교 SSG닷컴 농협 삼성생명공익재단 올리브영 강북삼성병원 환경부 ISC OECD MIT 여성환경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팡 정의당 SBS 나이키 보건복지위원회 GS리테일 GS25 유튜브 고등법원 LG화학 YWCA 질병관리청 국가인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세라젼

기관 검색어의 빈도 수를 토대로 워드클라우드를 구성했을 때도 1차 시기와 2차 시기 여성환경연대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게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자원순환시설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및 캠페인, 기후변화 생태여성운동 사례 연구 등 연구 및 캠페인 추진을 위한 기금이나 후원금도 2023년~2024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2024년 후원금 및
기금 현황



임팩트 4. 자원구축 및 대안생활

《플랫폼 : 달》 개관으로 대중접점 마련 및 활동네트워크 확충

임팩트그라운드 지원 사업의 세 번째 성과는 《플랫폼: 달》 개관 및 운영을 통해 에코페미니즘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일반대중과의 접점을 마련하고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한 것입니다. 이로써 플랫폼 임팩트 실현을 위한 물적자원을 구축하고 대안생활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문을 연 《플랫폼: 달》은 에코페미니즘의 공유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전시, 소모임 등을 제공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 인식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여성환경연대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나 단체가 아니더라도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마포구 인근 주민들이 길을 오가다 들르기도 하는 곳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플랫폼: 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및 공간 대관, 방문객 현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 수	66회
방문객 수	약 5,829명
《플랫폼: 달》 SNS 팔로워 수	2,066명

주요 협업 사례로는 세월호 10주기 공동체 상영회 및 북토크,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은 전시, 플리마켓, 낭독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의 가치를 연결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공간 대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간 대관 현황(2023.6월~2024.12월)	
2023년 하반기	96회 / 1,221명
2024년 상반기	96회 / 1,335명
2024년 하반기	81회 / 1,148명
합계	273회 / 3,704명

2024년에는 《플랫폼: 달》을 기반으로 네트워킹할 에코페미니스트와 단체를 모집하여 <춤추는 여인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룹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5개 팀이 지원하여 최종 9개 팀을 선발하였으며, 현재 69개의 단체가 《플랫폼: 달》을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업 단체	69개
-------	-----

에코페미니즘과 일반대중의 접점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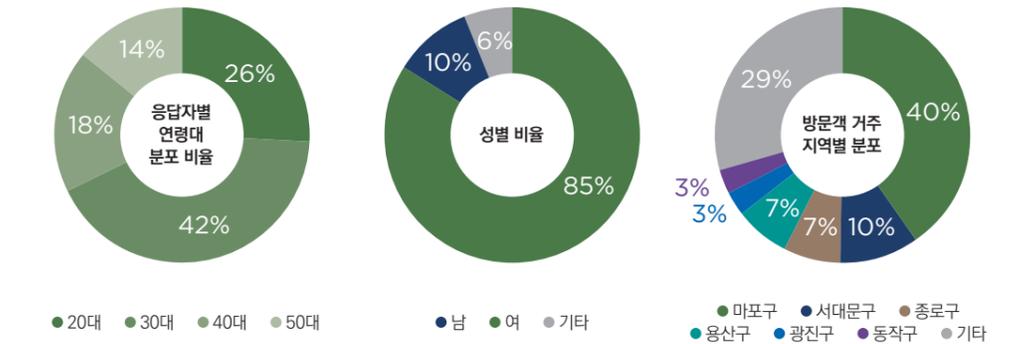
《플랫폼: 달》을 방문하게 된 계기와 방문 후 소감 등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설문 개요

- **설문 기간** : 2024.12.17(화)~12.31(화), 약 2주간
- **유효 응답자 수** : 72명
- **설문 방식** : 온라인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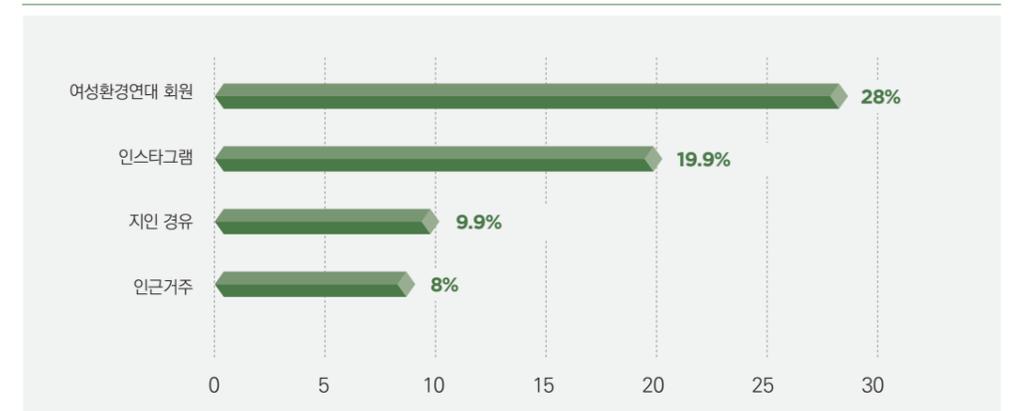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41.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성별의 경우 여성이 84.7%로 대부분이었으며, 거주 지역의 경우 마포구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플랫폼: 달》 설문 응답자 기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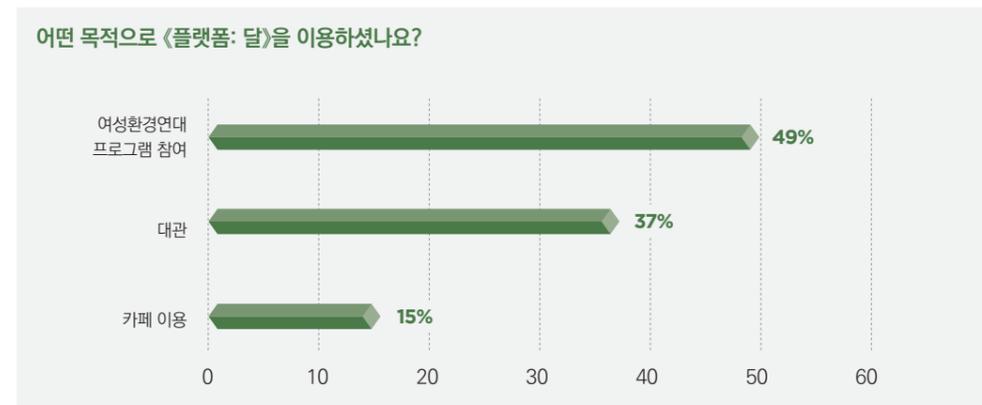
또한 《플랫폼: 달》 방문객의 약 28%가 여성환경연대 회원이었으며, 인스타그램 및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약 30%였습니다.

《플랫폼: 달》 인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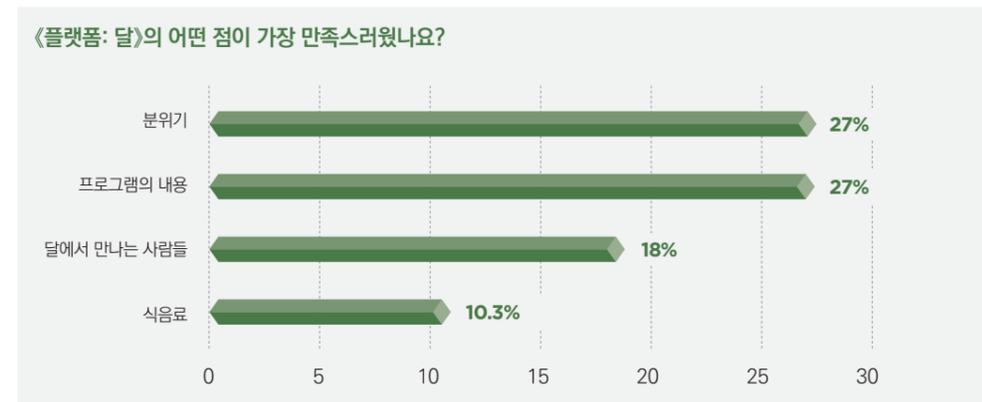
약 50%의 응답자가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플랫폼: 달》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달》이 에코페미니즘 가치를 확산하고 연결하는 공유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목적으로 추진한 대관서비스의 이용자도 37%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플랫폼: 달》 사용 목적



《플랫폼: 달》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약 27%), ▲프로그램의 내용(약 27%), ▲달에서 만나는 사람들(약 18%) 순으로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함에 따라 《플랫폼: 달》이 에코페미니즘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달》 이용 만족도



2024 IMPACT REPORT

4 사회변화를 위한 다음 여정의 시작



여성환경연대는 임팩트그라운드 참여를 계기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철학과 실천이 한국 사회 안에서 더 넓고 깊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에코페미니즘 활동을 단순한 프로젝트 차원을 넘어, 《확산-액션-연결》이라는 구조적 틀로 재정립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체 내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외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대폭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규모 활동들이 서로 고립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각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한 에코페미니즘 실천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제 여성환경연대는 단순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을 넘어, 에코페미니즘 실천의 촉진자이자 연결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환경연대는 에코페미니즘을 한국 사회에서 보다 다양한 지역과 방식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들과 협력을 확대하여 에코페미니즘 활동의 범위와 깊이를 넓히겠습니다. 여성단체, 환경단체, 청년 커뮤니티, 지역 시민사회 조직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며 시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풀뿌리 활동가와 지역 단체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활동가 교육, 컨설팅, 공동기획, 활동 리더십 육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셋째, 에코페미니즘의 가치가 더 많은 시민들의 삶과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교육·캠페인·정책 제안 등의 공공적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 대상의 워크숍, 청소년 및 교사 대상의 성인지 생태 교육, 기후위기와 젠더정의를 연결하는 퍼블릭 캠페인, 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연결”이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개별 주체들의 분투가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다양한 활동들이 공명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연결의 매개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철학이 현실 속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으로 전환되고, 결국 지속가능한 삶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성환경연대는 에코페미니즘의 철학을 바탕으로, 더 많이 확산하고, 더 깊이 실천하며, 더 넓게 연결하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생태적 감수성과 젠더정의를 함께 실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에코페미니즘이 단지 소수의 의제가 아닌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